

## 소박하고 순박한 건축을 위하여

### For a Humble and Modest Architecture

건축사 / 공일곤(향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이범재(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11월 7일(화)

장소 /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이범재** \_\_\_오랜만에 작품을 발표하셨는데, 이런 곳에 이런 건축이 들어서게 되다니 좀 뜻밖입니다.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구상되어서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작다고 할 수 없는 규모인데 처음부터 기능과 규모가 정해져 있었는지요? 이곳은 캠퍼스의 외곽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런 캠퍼스의 분위기와는 아주 다르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 공학관 건물과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일곤** \_\_\_말씀하신 대로 인접해 있는 공학관 건물의 느낌이 워낙 강하고, 위치를 고려할 때 과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최소한의 이미지로 처리돼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2층으로 된 것도 그런 이유가 반영된 것이고, 가능하면 지상 1층 이하로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이범재** \_\_\_이 건물은 경사가 심하고, 주위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그대로 있어서 참으로 계획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공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소위 디자인 개념이랄까 또는 건축어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일곤** \_\_\_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주안점으로 염두에 둔 것은 친근감없고 생명력도 부족하다는 현대공학의 산물(재료 및 기술)에다 감정을 부여해 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범재** \_\_\_공선생님은 주택을 많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주택의 아가지기



대담광경 (왼쪽:이범재, 오른쪽:공일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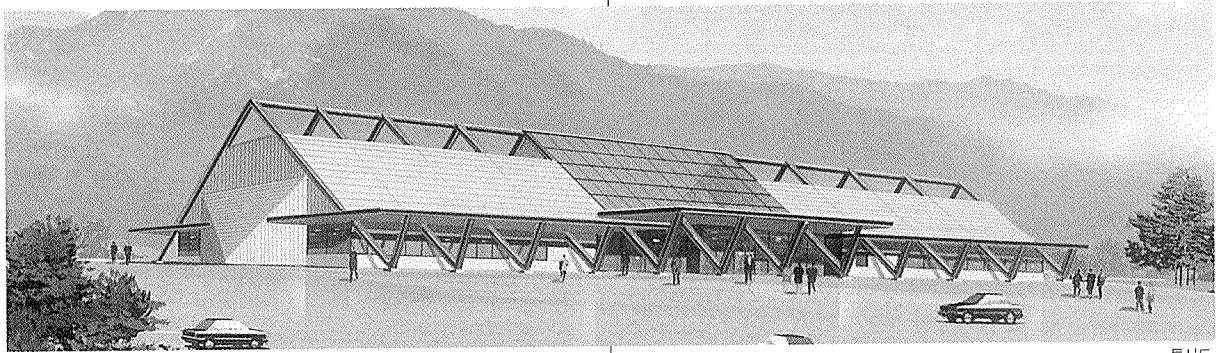
한 스케일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건축적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공공의 공간을 만드는 데에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으신지요?

**공일곤** \_\_\_건축가가 선호하는 것만 주로 골라서 설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동시에 건축가의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차피 생업이 건축설계이고, 건축설계라는 것이 의뢰인의 부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족한 점 등은 보충,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이범재** \_\_\_김진균교수와 합동으로 설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며, 또한 진정한 의미의 합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상대방의 고집이나, 힘에 굴복한다는 단세포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공일곤** \_\_\_그동안 사무소를 운영해 오면서 느낀 것은 건축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리더가 있어서 전과정을 이끌지만 구성원간의 기탄없는 대화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김교수와의 협동은 가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재** \_\_\_소위 공학도같은 또는 엔지니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속이지 않는다, 솔직한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사용된 ALC판이나 철골 등의 쓰임새를 강조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딱 연결되어 떠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재자체의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랄까 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투시도

공일곤\_\_\_이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주요 테마로 생각한 것은 우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에 적합한 자연적인 형태, 또 현재 시장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조립방식)을 최대한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한 조형성 창출하기 등이었습니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자연과 어울리는 적합한 형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어느정도 방침을 정했고, 그 후에 조형성 창출하기에 이르러 많은 시간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현대의 공학도답게 표현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 시말하면 구조상 필수적인 구조방식, 재료 등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 용도가 없는 장식(조형)을 위한 조작 안하기, 다분히 인공적이고 기계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재료를 사용하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목재나 석재 등 자연환경을 파괴해야 하는 재료는 가급적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 기계적이고 천화성이 없다는 철재, 콘크리트, 유리 등을 2차 마감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감정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범재\_\_\_건축주의 경제적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도 나름대로는 정도차이가 아닐까요? 이 건축물은 오히려 처음엔 예산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 예산에 적합하도록 하시다가, 어느정도 예산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당황하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디까지 그런 돈문제로 인하여 디자인이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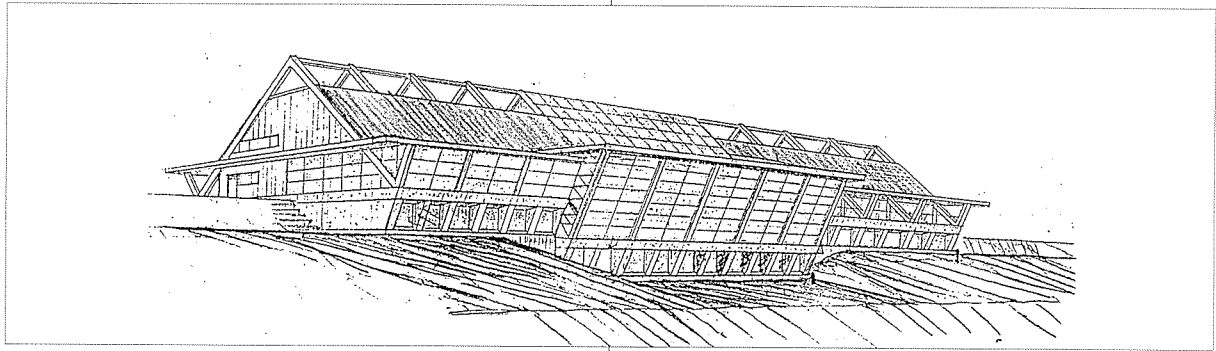
공일곤\_\_\_물론 건축물의 영속성을 고려할 때 설계자의 철학이나 판단에 따라 경제성의 관여 비중을 정하겠지만, 저는 의뢰인의 예산을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재\_\_\_이곳의 로비는 천창이 투명하고, 벽면도 투명하여 그 반사되는 영상이 천정에 비치기도 하고, 여기저기 간섭이 일어나서 어떤 점에서는 마치 온실에 들어온 것같이 느껴지는데, 정작 이러한 공간을 설계하시고 싶어하셨는지? 아니면 이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요? 외부의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시각적으로 그냥 열어 놓은 것은 아닌지요?

공일곤\_\_\_예, 맞습니다.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이곳의 주변환경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로비는 간단히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노출된 공간으로 구성하려고까지 시도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실현되지 못하고, 차선책의 하나로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내부공간이 아닌 내부공간에 있는 외부공간으로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범재\_\_\_자연적인 자재 즉 목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 환경을 나쁘게 한 다거나, 있는 것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인공적인 자재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좋은 자연환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런 곳에 건축물을 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뜻 인지요?

공일곤\_\_\_환경파괴의 최소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연을 훼손하는 건축행위는 제한되어야겠지요. 요즘 자연산 제품은 무조건 친환경적이고, 산업생산품은 비인간적이라고 비하하는데 대해 일종의 구태타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수목이나 돌산 등이 남아 나겠습니까?



배면스케치

**이범재** \_\_ 선생님은 이 작품에서 소위 말하는 장식적인 요소를 별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솔직한 이미지, 소박한 건축물의 구현을 위하여 그러한 디테일의 사용을 자제하신 것으로 보아도 됩니까?

**공일곤** \_\_ 쓸데없는 장식적 요소의 배제는 저로서는 기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생각컨대 저의 세부 처리 능력이 부족한 점도 인정합니다.

**이범재** \_\_ 왜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형상이 되었습니까?

**공일곤** \_\_ 삼각형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구조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범재** \_\_ 이곳은 현재 음식점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음식점에 맞게 내부가 좀 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결국 건축가가 인테리어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어떻게 그 역할을 규정하여야 할지요? 잘못하면 골조, 외관 또는 내부공간 이외에 여러 가지의 부분이 변하고 말 것인데 말입니다.

**공일곤** \_\_ 인간으로 치면 기본 골격형태의 완성은 건축가의 영역이지만, 의상의 문제는 물론 골라줄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주 사용자의 의사 개입 여부는 기본형태의 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도리어 적극 협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재** \_\_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감동적인 장소는 강당인 것 같습니다. 그 규모, 공간이 아주

아늑하고 휴먼스케일이면서 창으로 톱어진 벽면, 특히 무대의 후면이 유리로 되어 밖의 산이 보이는 이곳은 이 건축물에서는 가장 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강당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두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일곤** \_\_ 설계 착수 후 기본사항 설정 때, 강당, 로비, 식당 등이 성격상 특별한 공간 비례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강당은 이달우 전추진위원장(공대 동창회장)께서 공학 후배들을 위해 최고의 오디오시스템을 기증할테니까 이에 걸맞는 음악감상실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을 주문하셨고, 통상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연단후방의 개방을 김진균교수님이 제안하셔서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이범재** \_\_ 선생님은 건축을 시작한 이래 30여년 동안 본인의 작품속에 연연히 흐르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자세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일곤** \_\_ 설계를 진행하면서 형태나 건축 조형에 대해 좋아하는 특정작가의 작품을 모델로 하더라도 결과는 그 작가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듯이 구태여 일관성이란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예술성을 강조하는 미의 작품에 앞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가장 안전성이 요구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현실적인 실용물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조형성처럼 주관적인 문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닌 감상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감상의 문제가 실은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